

브라질 통신 산업 동향

□ 브라질 정부, 브로드 밴드의 보급 확대계획 추진

- 브라질 통신부는 전국적으로 인터넷의 「브로드 밴드 보급 5개년 계획」을 추진 중
- 동 프로젝트는 민관합동계획(PPP)에 입각해 755억 real의 투자가 투입되면, 2014년까지 9000만 건의 브로드 밴드의 access를 가능케 하는 계획
- 투자금액 중 490억 real은 기업의 자체 자금과 BNDES의 융자 그리고 나머지 265억 real은 공적자금(연방 및 주정부)으로 투입할 예정이며, 민간 기업은 휴대전화의 오퍼레이팅 기업을 주체로 310억 real을 투입하여 53백만 회선의 브로드 밴드를 설치하고 고정 전화회사는 2014년까지 18백만 회선의 정비를 위하여 180억 real을 투자할 예정

□ 브라질 브로드 밴드 보급률 전세계 제 69위

- 현재 브라질의 브로드 밴드 보급률은 전체 인구 중 약 1,000만 명에 해당하는 겨우 5.19%가 사용하여 세계 제 69위로 아르헨티나, 칠레, 멕시코, 우루과이보다도 보급률은 낮은 수준을 기록
- 이에 브라질 정부는 2014년까지 브라질 가정의 50% 이상이 브로드 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09년도의 사용인구는 약 2,000만 명으로 추정
- 브라질 통신 산업은 '14년 월드컵 및 '16년의 올림픽 개최로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나, 현재 브라질의 브로드 밴드 이용 코스트가 평균월수입의 9.6%에 달하고 있어 아직 비싼 것으로 지적

□ 휴대 전화 및 고정 전화 현황

- 브라질에서 사용 중인 전화 회선수(고정 및 휴대 전화)는 2008년 말 현재 총 192백만 회선으로 고정 전화가 41.1백만 회선 (세계 6위), 휴대 전화는 151백만 회선 (세계 5위)을 보유
- 이 같은 회선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최대이며, 미주대륙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의 수준

※ 전세계 1위는 중국으로 10억 회선, 미국 422백만, 인도 385백만, 러시아 232백만 회선

□ 휴대전화 시장 경쟁의 격화 예상

- 브라질 현재 휴대전화시장의 시장점유율은 Vivo 29.4%, Claro 25.5%, TIM 23.9%, Oi 20.9%등 4대 대기업이 분할중이며, 유선전화시장은 집중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Telefonica와 Oi의 점유율이 시장의 80% (41.6백만 회선)을 차지
- 한편, 지난 11월 13일 프랑스의 종합 미디어 기업인 Vivendi사가 브라질 통신 회사인 GVT를 약 72억 real(42억 달러 상당)에 매수함으로써 브라질의 통신 업계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

브라질 유선전화 시장 현황

지배 회사(자본)	유선전화		
	산하 기업	주 활동지역	시장점유율 (%)
Vivendi(프랑스)	GVT	남부, 동남부, 중남부, Acre, Roraima, 토칸친스, 바이아 주	2.5
Telefonica(스페인)	Telefonica	국내, 특히 상파울루 주에 집중	27.6
Oi(브라질)	Oi, Brasil Telecom	국내, 특히 리오, Espirito Santo주, 동북부에 집중	52.3
Telmex/ America Movil(멕시코)	Embratel	국내	13.8

브라질 휴대전화 시장 현황

지배회사 (자본)	휴대전화		
	산하기업	주 활동지역	시장점유율 (%)
Vivendi(프랑스)	GVT	남부, 동남부, 중남부, Acre, Roraima, 토칸친스, 바이아 주	0.0
Telefonica(스페인)	Vivo	국내, 특히 상파울루 주	29.4
TIM(이탈리아)	TIM	국내	23.9
Oi(브라질)	Oi, Brasil Telecom	국내, 특히 리오, Espirito Santo 주 등	20.9
Telmex/ America Movil(멕시코)	Claro	국내, 특히 상파울루, 리오주	25.5

출처 : Anatel

<사용파울루 사무소 제공>